

맞이하기

- *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와 가장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나누어봅시다.
- * 지난 주 함께 기도한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요약

- * 설교본문과 설교요약을 읽습니다. (bit.ly/31moim)

은혜 나누기

- * 말씀을 들으며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 말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감사하게 된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 오늘 나눈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타락하고 무너진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은 무엇입니까?
- 유다 백성이 출애굽의 광야 생활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기

- *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구체적인 기도제목 한 가지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 공동체를 위한 기도제목들을 공유하며 기도합니다.

들어가며

여호와와 그의 백성들이 임할 심판으로 인해 유다 땅에 남자들이 남아나지 않을 무서운 현실을 보여주며 경고는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그의 백성들이 임할 영광스런 구원과 회복이 선포됩니다.

1.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사야 4장의 회복의 그림에서 우리는 '여호와와 그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할 때 식물 이미지를 즐겨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백성'은 좀 더 특별한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이자 왕인 메시아를 의미합니다(참고. 11:1).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왕이 그 백성들의 회복을 이끌 것이 약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3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를 생각해본다면 이는 보다 분명해 집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과 고관들의 부패와 타락이 유다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로부터 오시는 새로운 왕, 곧 메시아는 모든 병폐를 치유하고 그 땅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와 영광의 아름다움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회복에 참여할 자들은 '남아 있는 자'로 묘사되며, 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로 일컬어집니다(참고. 말 3:16).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다'라고 하시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실 것입니다(참고. 출 19:5-6).

그런데 놀랍게도 4절은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불릴 자들이 다름 아닌 처참하게 무너져있는 유다 백성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는 대신, 당신의 백성의 더러움을 씻기 시고 그들의 손에 묻은 피를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

이사야는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 곧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내다봅니다. 이는 다름 아닌 출애굽 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였습니다(참고. 민 14:14). 따라서 이러한 출애굽 이미지는 이스라엘이 원래 어떠한 존재로 부름 받았으며, 하나님의 어떠한 구원과 사랑과 보호와 인도를 경험했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인도가 있었던 그곳은 다름 아닌 광야 한 복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안정된 거처 하나 없이 유리했지만 가장 안전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늘 부요했습니다. 외로운 떠돌이 생활이었지만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경험하며 거룩을 매일같이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백성에게 광야는 역설의 시공간이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은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부요함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광야 초막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의 인도와 보호를 다시 경험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더위와 풍우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는 초막이 되어 그들을 덮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절정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이 되어 임하셨습니다(요 1:14). 수치를 벗고 영광을 회복하는 방법은 그분께 돌아가는 길 밖에 없습니다. 광야 길을 걷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실체이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부요하고, 가장 복됩니다. 오직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가치있고 빛나게 하십니다.